

도민에게 행운과 복 가져다주는 미륵상

[민속자료 동자복.서자복] 입춘굿 제사로 새삼 주목...미래불 역할 회복

데스크승인 2014.03.06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서자복

인간에게 행운과 복을 가져다주는 미륵상이 제주에 2기 있으니 바로 동자복과 서자복이다.

돌하르방보다 훨씬 큰 높이 3m가량의 석불 입상으로, 동자복과 서자복은 1971년에 복신미륵(福神彌勒)이란 이름으로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제1-1호와 제1-2호로 나란히 지정됐다.

동자복은 제주시 건입동 만수사 터, 서자복은 해륜사 터(현 용화사)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위치는 과거 제주성의 동서 양편으로 동자복과 서자복은 수호신 성격을 띤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호국불교처럼 제주목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제주목을

중심으로 만수사는 청룡의 꼬트머리, 해륜사는 백호의 꼬트머리에 각각 세워졌다.

두 미륵상의 제작 시기는 불상이 토속적으로 변모하는 양상에 비춰 고려 후기가 유력하다.

조선시대 제주목사 이형상이 쓴 '남환박물'(숙종 28년)에도 관련 기록이 보인다.

'제주성 동쪽에 만수사가 있고 서쪽에 해륜사가 있는데, 각각 불상은 있지만 상시 관리인이 없어 마을에서 사람을 정해 돌보고 있다. 설과 단오, 추석, 동지 등 네 명절 때면 사람들이 모여 예불 할 따름이라 오래 둘 수 없으니 두 사찰을 헐어 관아를 세우라고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동자복과 서자복은 복신미륵과 더불어 자복미륵이나 자복신, 미륵, 돌미륵, 미륵부처, 큰 어른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이들 두 미륵상은 한 쌍으로 제작되던 고려시대 석불 입상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제주의 고대 불교가 남긴 유일한 조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미륵상은 제주불교의 변천과 맞물려 민간신앙과 결부되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존재했다. 실제 서자복의 옆에 세워진 75cm 높이의 남근상은 한때 기자(祈子)효험이 있다고 믿어졌다.

일제 강점 당시 '아카마츠.아키바 보고'에 의하면 동자불이나 동자미륵, 동자보살로 불린 이 둘 위에 여자가 걸터앉아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얻는다고 널리 알려졌다.

주민들은 남근상에 치성을 드려 득남하거나 집안의 액운과 온갖 근심거리, 아이의 질병 등을 해결했다고 굳게 믿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집안은 이 남근상과 인연을 맺은 후 조상으로 모실 정도였다.

동자복과 서자복은 모양은 달라도 둘 다 병거지를 쓴 채 눈매가 인자해 인상적이며 예복을 걸친 채 두 손을 가지런하게 모은 점도 공통이다. 두 석상 모두 제주 현무암으로 제작됐다.

동자복은 민가 안에 있다가 2007년 소유자의 채무관계로 경매 처분될 위기에 놓였다가 제주시가

입찰에 참가해 입수했다. 동자복은 주택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된 소공원에 모셔졌다. 현재 사찰 안에 있는 서자복도 새로운 보존·운영방안을 통해 개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미륵상은 지난해부터 탐라국 입춘굿의 서막을 고하는 제사를 통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도민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주고 복을 내려주던 미래불로서 역할을 되찾고 있는 것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